

“전남 의대” 문제 하루 만에 입장 바꾼 민형배

민형배·주철현, 순천시 정책연대 선언
의대 정원 50대50·대학병원 2곳 제안
TV토론회에선 “50대50 동의 안한다”
강기정 “공약 신뢰 어려워” 정면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간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형배 국회의원이 불과 하루 사이에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광주 광산)·주철현(여수) 국회의원은 26일 순천시청에서 전남 동부권 미래 비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 의원과 주 의원은 지역 산업, 전남권 국립 의대, 반도체를 3대 현안으로 제시하며 핵심 공약과 정견을 발표하는 등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특히 이들은 국립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 “목포대와 순천대에 각 50명씩 의대 정원을 배정해 교육하겠다”며 “50대50 배분” 방안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단순 분선이 아니라 통합형 분산

교육 모델이기 때문에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일부에서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방안을 거론하지만 저희는 동·서부에 1개씩 설립하는 것이 전남 전체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 의원이 이날 발표한 의대 정원 관련 내용은 전남 TV토론회에서 밝힌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실제 민 의원은 전남 KBC광주방송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 “50대50” 배분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는 토론회에서 민 의원을 향해 “정부로부터 100명 의대 정원을 배정받았는데 (목포대와 순천대에) 각 50명씩 2개 의대를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그 자체를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들이 서로 합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찌는나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동의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주철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가 26일 순천시청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 위기 극복과 공공의료 확충을 2개 축으로 한 정책 비전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 <민형배 국회의원실 제공>

보느냐”고 묻자, 민 의원은 “안하실 것 같다. 의대를 둘로 나눠 목포 50명, 순천 50명씩 2개 대학으로 두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 의원의 입장 번복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핵심 정책을 하루 사이에 뒤집는 모습으로 어떻게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정책에는 최소한의 일관성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합종연횡은 있을 수

있지만 정책까지 흔들려서는 안된다. 지역 의료와 직결된 사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꾸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응급수술에서도 혈액형을 맞춰 수혈하듯, 정책 연대 역시 기본적인 방향과 가치가 맞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변은진기자

권노갑·박광태 등 ‘김영록 캠프’ 합류

후원회 명예회장·선대위 고문 뒷받침
“일 잘하고 청렴...성과도 돋보여” 지지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박광태 전 광주 시장, 노진영 전 광주대학교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지역 원로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후원회 공동 회장직을 수락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예비후보 측 “탄탄캠프”는 26일 “권 이사장과 함께 박 전 시장, 노 전 총장, 김 전 회장 등이 윤종식 현 후원회장과 함께 김 예비후보의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선대위 상임고문까지 겸한다.

김 예비후보 측은 “권노갑 백인평전” 출판기념회를 이달 초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권 이사장을 비롯해 광주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박 전 시장과 노 전 총장, 중앙·지역 경계계를 아우르는 김 전 회장의 합류는 광주·전남 통합과 균형발전 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최근 원로 공직자 30여명과



함께 선거 캠프를 찾아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박 전 시장 등은 “40년 만에 통합된 전남과 광주를 갈등과 혼란 없이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김 예비후보”라며 “공직자로 시작해 국회의원·장관·전남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며 일 잘하고 성과도 입증됐다. 뛰어난 소통 능력과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왔다”고 평가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통합특별시 비전·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한편, 캠프의 외연이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어른들이 캠프에 합류해 주셔서 너무도 고마운 마음이며 더 잘해 반드시 초대 특별시장이 돼야겠다는 각오를 다진다”며 “공동후원회장님들의 경륜과 고견을 바탕으로 전남·광주의 힘을 하나로 모아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이정선 시교육감, 통합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예비후보 등록으로 이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승복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교육 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40여년간 오로지 교육의 길만 걸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의 교육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주와 전남은 이제 교육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의 교육 중심지로 거듭나고 교육의 수준을 확 끌어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옥기자

민주 광주 남구·북구청장 경선 후보 압축

남구 김병내·황경아 2파전 확정
북구 5파전 구도...결선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남구청장·북구청장 후보 예비경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경선 구도를 확정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밤 남구청장, 북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 경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예비경선은 지난 24·25일 이틀간 관리당원 100%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구청장 예비경선에서는 김병내·황경아 후보(가나다 순)가 상위 득표를 기록하며 본격 경

선에 진출,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현재 프리미엄을 안고 3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와 3선 남구원의원과 의장을 지낸 황 후보 간 경쟁 구도가 성사돼 본격 경선에서 치열한 표심 경쟁이 예상된다.

북구청장 예비경선에서는 김동찬·문상필·신수정·정다운·조호권 후보(가나다 순) 등 5명이 본격 경선에 올랐다.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만큼 표 분산 가능성이 커 상위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간 조직력과 세 확장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합종연횡이나 전략적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은진기자

대한민국 방방곡곡 모두모두 이사이사사

가장 필요한 곳에서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MG새마을금고가 금융으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청년 주거 및 생활비 장학금 지원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 마을기업 연계 사업 발굴, 지역 상권 살리기 | 저신용자 금융 지원 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줄도리 | 문화복지센터, 우리동네 MG갤러리 운영 |